

국제선 하늘길 슬슬 열리는데... 바라만 보는 LCC

대한항공 내달부터 미주 등 운항
아시아나항공도 운항 재개 준비

LCC, 단거리 등 재개 지역 한계
자가격리 제한 등에 사실상 불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항공업계에서 일부 국제선 운항 재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저비용항공사들은 '엑시트 플랜'을 세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 가운데 FSC(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국제선 운항 재개 계획을 밝히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의 완화 이후 증가할 여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6월부터 한 달간 총 110개 노선 중 32개를 운영하고, 78개는 운휴를 유지한다. 운항 재개를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실시하는 노선에는 워싱턴, 시애틀, 암스테르담 등 미주 및 유럽 지역과 올란바르트, 쿠알라룸푸르 등 동남아·동북아 지역이 포함됐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달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쿄 나리타 노선에 다시 취항하고 있다.

그러나 단거리 지역만 운항이 가능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들은 아직까지 국제선의 운항 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형항공기로 다소 거리가 먼 노선도 운항하고 있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달리, LCC들은 기존 약 4시간 미만의 일본, 중국 등 지역만 취항해 운항을 재개할 수 있는 지

역이 한정적이기 때문.

또한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여객 수요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출국시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라는 제한까지 있어 사실상 국제선의 운항 재개는 무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저비용항공사들은 6월까지 국제선 운항 재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 운항 재개'라는 퇴로마저 확보할 수 없는 LCC들은 국내선 운항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제주도 노선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 국내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청주-제주 노선에 신규 취항했고, 5월 한 달동안 김포-부산부정기 노선을 운항한다. 제주항공도 지난달 ▲김포-여수 ▲여수-제주 등 노선에 잇따라 신규 취항했으며 에어부산도 중단됐던 ▲울산-제주 ▲울산-김포 노선을 55일만에 운항 재개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제선을 운항 재

개한다고 하더라도, 입·출국시 14일 자가격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모든 항공사가 운항 일정을 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비즈니스 수요 때문에 노선 운항 재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외항사들도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최근 들어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카타르 정부 소유의 카타르항공은 각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봉쇄를 완화한다면 이달 안으로 52개 노선, 내달에는 80개 노선을 운항 재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카타르항공은 당초 코로나19 사태 이전 165개 노선에 취항했으나 현재 33개 주요 노선만을 운항 중이다. 터키의 국적사인 터키항공도 내달부터 한국 등 19개국을 오가는 국제선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터키항공은 6월 중 기존 노선의 60%를 운항 재개할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G·V 떴고 나온 '벨벳', LG폰 구원투수 될까

기존 시리즈명 벗어나 새 네이밍
15일 출시... 출고가 89만9800원

LG전자가 오는 15일 전략 스마트폰 'LG 벨벳' 출시를 앞두고 제품 알리기에 한창이다. 디자인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디자이너 인터뷰 영상, 패션쇼 형식 등으로 제품을 소개하며 디자인에 힘쓴 것을 강조했다. 올해 1분기까지 20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에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G전자는 LG 벨벳을 통해 '알파벳+숫자'와 같은 확실적인 기존 스마트폰 네이밍 체계에서 벗어났다. 향후에도 LG전자는 기존에 사용해왔던 V50S 씽큐와 G8 씽큐 같은 'G 시리즈'와 'V 시리즈' 대신 제품 이름에서부터 제품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LG전자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매끄러운 특징과 손에 쥐었을 때 느낄 수 있는 편안함과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최고급 소재인 벨벳을 선택했다. 벨벳에서 연상되는 고급스러운 이미지처럼, 신제품의 세련된 디자인이 고객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LG 벨벳 예약판매를 실시한다. 모델이 LG 벨벳 예약 판매에 참여했을 때, 제공되는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는 과거 '초콜릿폰', '아이스크림폰', '프라다폰' 등 제품별로 각기 다른 이름을 붙여 인기를 끈 경험이 있다. LG 벨벳을 통해 과거와 같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G 벨벳의 눈에 띄는 디자인 특징은 '물방울 카메라', '3D 아크 디자인'이다. 물방울카메라는 후면 카메라 3개와 플래시가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 세로 방향으로 배열돼 이름 붙었다. 후면 카메라는 4800만(표준), 800만(초광각), 500만(심도) 화소의 성능이다.

또한 LG 벨벳은 6.8형 대화면임에도 너비가 74.1mm에 불과한데, 여기에 전면 디스플레이 좌우 끝을 완만하게 구부린 3D 아크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손에 착 감기는 듯한 밀착력을 구현했다. 색상은 오로라 화이트, 오로라 그레이, 오로라 그린, 일루전 선셋 등 4가지다. LG전자는 오는 14일까지 예약 판매를 진행하며, 15일 이동통신 3사와 오픈마켓, LG베스트샵 등 자급제 채널을 통해 LG 벨벳을 국내 출시한다. 출가는 89만9800원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LG 벨벳', 복고감성 담은 캠페인 영상 공개

연예인 하하와 웹드라마 형식 전개

LG전자가 연예인 하하와 손잡고 'LG 벨벳'을 활용한 디지털 캠페인 영상을 10일 공개했다.

이번 디지털 캠페인은 웹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됐다. 캠페인 슬로건은 '당신의 소중한 순간마다 함께한 LG 모바일'이다. 영상은 LG 모바일을 매개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LG전자는 과거부터 지속된 디자인 리더십을 LG 벨벳으로 이어가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영상에서 하하는 파손된 스마트폰을 LG 벨벳으로 교체하고 기묘한 일상을 경험한다. 이후 LG 벨벳을 중심으로 각 시대를 대표했던 초콜릿폰, 아이스크림폰 등을 교차로 보여주며 LG 모바일이



LG전자가 연예인 하하와 손잡고 'LG 벨벳'을 활용한 디지털 캠페인 영상을 10일 공개했다.

소중한 순간마다 함께 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구서윤 기자

LG화학, 印 화재 공식사과... "대책 마련"

"원인 규명, 재발방지 만전"

LG화학의 인도 현지법인인 LG폴리머스가 공식 사과를 했다.

LG화학은 지난 9일 인도 현지법인인 LG폴리머스가 공장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 현지에서 배포한 사과문을 통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사고 원인조사, 재발방지대책 및 치료 등 제반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폴리머스는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지난 7일 새벽 GPPS공장 부근 SM 저장탱크에서 유증기 누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공장의 가스 누출은 통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공장 안전화에 주력하는 한편 최우선

적으로 유가족 및 피해자분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정부기관과 함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케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곧바로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LG폴리머스는 "유가족 및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전담조직을 꾸려 사망자 장례지원, 입원자 및 피해자 의료와 생활용품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정서 관리 등 다양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향후 지역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중장기 지원사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폴리머스는 "피해자 구조와 피해 복구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고를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김수지 기자

HMM 알헤시라스호 만선 출항... '신기록'

HMM의 알헤시라스호가 만선 출항을 알리며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HMM은 2만4000TEU급 컨테이너 1호선 'HMM 알헤시라스'호가 컨테이너를 가득 채운 만선으로 8일 중국 안티안에서 유럽으로 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HMM 알헤시라스'호는 지난달 28일 부산신항에 첫 입항해 7156TEU를 신고 30일 출항했다. 이후 중국 닝보와 상해를 거쳐 이달 7일에 안티안에 입항했으며, 8일 최대 선적량인 1만9621TEU를 신고 유럽으로 향했다.

알헤시라스호는 세계 최대 선박으로 6M 길이(1TEU) 컨테이너를 최대 2만4000개까지 적재할 수 있는데, 안전운항과 화물 중량 등을 감안하면 통상 최대 1만9600TEU 수준이 적정 적재량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2만4000TEU급 컨테이너 1호선 'HMM 알헤시라스'호가 컨테이너를 가득 채운 만선으로 8일 중국 안티안에서 유럽으로 출발했다.

그동안 MSC의 2만3756TEU급 'Gulsun'호가 1만9574TEU로 최대 선적량을 기록했으나, 이번 'HMM 알헤시라스'호가 47TEU 많은 1만9621TEU로 출항하면서 기존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

/양성운 기자 ysw@